

# 유태인들이 꽃피운 19세기 빈의 문화

## 유태인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역사적 반추



유태인으로서 19세기의 중요한 빈의 문화를 주도했던 인물들. 위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아르투어 슈니츨러(1862-1931),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 요셉 로트(1894-1939),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

19세기 빈의 문화예술은 미국인과 서구 유럽인들이 매혹당할 만큼 풍요로운 것이었다. 합스부르크제국을 중심으로 한 빈의 문화는 칼 클라우스, 슈테판 츠바이크, 요셉 로트,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르투어 슈니츨러 등 뛰어난 유태인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20세기 문화예술의 발달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19세기 빈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매력적인 테마로 남겨져 있다.

많은 저서 가운데 19세기 빈의 유태인들을 분석한 「프란츠 요셉 시대의 빈의 유태인들」(*The Jews of Vienna In The Age of Franz Joseph*)은 공평하고 학문적인 대표적 저서로 꼽히고 있다. 저자 로베르트 S. 비스트리치는 예루살렘의 헤브루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자신이 유태인이면서도 형평을 잃지 않게 저술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세기말 빈의 유태인 인구수는 엄청난 증가를 보인다. 유태인의 인구수는 1860년대에 불과 6천명이던 것이 1910년에는 모두 17만5천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보헤미아, 모라비아, 갈리시아 등지로부터 제국

의 중심부로 이주해오는 유태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빈의 유태인들은 대부분 합스부르크제국의 충실한 지지자였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합스부르크제국의 보편주의적 도양은 뿌리없는 유태인들로서는 더없이 활동하기에 좋은 생활공간이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합스부르크제국, 특히 프란츠 요셉 1세 치하의 오스트리아제국이 가졌던 문화적 포용력이다. 19세기 초 이후로 유럽 전역에서 반유대주의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합스부르크제국은 비록 대단히 우호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지언정 유태인 분리주의자와 유대인 동화주의자가 나란히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악덕을 유태인에게 귀속시키는 반유대주의의 물결이 합스부르크제국에도 몰아닥쳤다. 합스부르크제국 내의 체코인, 폴란드인, 슬로베니아인,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좌절을 야기시킨 장본인으로서 유태인을

지목했다.

극우세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테오도어 헤르츨이 이끄는 시오니즘 운동도 유태인 공동체 내부에서 점차 공감대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테오도어 헤르츨은 유대인 저널리스트 칼 크라우스가 주장하는 동화주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유대인들만의 새로운 국가건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 가운데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시오니즘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조국이 없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발휘할 수 있었던 높은 정신성, 합리성, 휴머니즘, 보편주의가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품고 있었다. 이들의 반목은 대단한 것이어서 사회문화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동화주의자들은 시오니스트들을 시대착오적인 존재로 경멸했고, 시오니스트들은 칼 크라우스, 아르놀트 쇤베르크, 구스타프 말러 같은 동화주의자들을 위선자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모두 옳았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즉, 만약에 시오니즘에 입각한 이스라엘국가가 좀더 빨리 건설되었다면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오니스트들이 시대착오적 존재는 아니었으며, 한편 이스라엘의 성립 후 유대인 민족주의가 팔레스타인인에게 가하는 억압은 칼 크라우스가 말했던 이산유대인의 보편주의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

오늘날 미국의 다양한 소수민족문제와 소련의 인종분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의 유색인종차별이 역사의 진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엄존해 있는 상황에서, 비스트리치의 저서는 19세기에 유럽이 유대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실패의 역사를 반추시킴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제1차세계대전 이전까지만에서의 유대문화와 게르만문화

의 공존은 순수한 세계주의의 한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지식과 문화의 힘에 대한 그들의 믿음, 언어와 예술의 고결함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비록 그들의 희망은 나치즘의 폭력에 의해 사라지고 말았으나 이 책은 그들의 높은 희망이 무엇이었든가를 다시금 생각케 해준다.

## 현대인에게 던지는 신화의 의미

폴란드 출신의 철학자 레스체크 콜라코프스키가 쓴 「신화의 존재」(*The Presence of Myth*)가 최근 시카고대학 출판부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138페이지라는 짙막한 분량의 이 저서에서 콜라코프스키는 신화가 현대인에게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신화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덧없고 우연적이며 인간의 행불행에 냉담한 우주를 인간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또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그것을 기억하는 이조차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실감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혹자는 이러한 콜라코프스키의 설명에 대해 그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콜라코프스키는 터무니없이 신화를 과학보다 우위에 놓지는 않는다. 그는 신화를 과학에 대비시키면서도 이 둘의 관계를 평면적인 적대구조가 아니라 서사적인 갈등구조로 이해한다. 신화적 상상력은 물리적 세계의 냉담함을 넘어서려 하고 과학적 설명은 그 신화적 상상력이 발 딛고 선 인간적 조건을 지적하면서 다시 그것을 무화시키려는 순환과정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콜라코프스키가 말하는 신화는 철학적 세계관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는 이성(reason)에만 의존해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완성했노라고 주장하는 저 플라톤에서 훗설에 이르기까지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결국 이성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믿음(faith)에 바탕을 둔 하나의 신화를 창출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용 없는 자유는 공허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가치이고 그 가치는 신화라는 뿌리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사랑'의 핵심에는 신화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사랑은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연의 산물임을 부정한다.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시간에 속박된 경험적 현실을 초월한 곳에도 두려고 한다. 또한 신화적 사고가 없으면 타인을 하나의 개체로서, 인격체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과학은 사랑에 대해서만 문외한일뿐 아니라 인격성에 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을 종교적인 도그마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할 때, 그 과학에 힘입어 어렵게 확보한 인간의 자율성과 냉철한 현실인식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매몰당함이 없이 신화와 과학의 긴장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콜라코프스키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다.

## 20세기 문화와 과학기술의 해부

문명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20세기의 종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더이상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동구에서 시작된 이데올로기적 해빙의 물결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케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과학, 곧 이성에 바탕을 둔 세계관의 비극적 종말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인간상에 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다가올 미래를 어둡게 응시하고 있다. 이 모든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일관성있게 설명하기 위한 지적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간행된 한권의 저서



가 세인들의 조용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우주의 빛 속으로 사라짐(Disappearing Through the Skylight)」인데 여기에서 저자인 O. B. 하디슨은 20세기의 문화와 과학기술문명을 본격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하디슨은 모더니즘(modernism)과 모던(modern)을 구분하면서 전자가 에피소드적이고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대체로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후자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입각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운명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까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지평으로 솟아오를 단계에 와 있다. 지구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문명은 광대무변한 우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모험의 주역은 인간이 아니다. 탄소와 물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낡은 껍데기에 갇혀 있던 인간의 '정신'은 실리콘칩이라는 불멸의물질 속에서 장대한 우주적 진화의 정점을 향해 비상한다는 다분히 공상과학적인 세계상을 그는 과감히 펼쳐 보인다.

하디슨의 원래 전공은 르네상스 문학이지만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못지않게 관심의 폭이 넓어서 수학, 건축학, 신경과학, 미학 등을 두루 섭렵한 박학자라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인문학을 전공하면서도 테크놀로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도 근대과학이 인간의 안과 밖을



O. B. 하디슨

남김없이 해부하여 결국은 인간을 뿌리뽑힌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고 이제까지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좁은 틀 속에 그것을 언제까지나 묶어둘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그는 낙관론으로 돌아섰다.

하디슨은 오늘날의 문명이 로마문명이 기독교문명으로 바뀐 것에 못지않은 중대한 전환점에서 있다

고 말하면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실리콘으로 만든 인조인간을 광대무변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동지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고정된 파악도 용납하지 않는 무한히 열린 개념인가, 아니면 반드시 고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 무엇이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닫힌 개념인가? 값진 저작들이 늘 그러하듯이 하디슨의 이 책도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페미니즘의 정신분석학적 도전

전통적으로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프로이트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었고, 당시 페미니즘운동에 반감을 가졌으며, 여성을 불완전한 생식기를 지닌 도덕적으로도 열등한 인간으로

보았다. 어쨌거나 프로이트의 외디푸스 콤플렉스이론은 결과적으로 남성 우월주의, 엄격한 성의 노동분배와 교묘하게 연결됐던 것이다. 이러한 프로이트 이론에 반기를 든 것이 페미니즘. 최근 출간된 「페미니즘과 정신분석」(Feminism and Psychoanalytic)은 페미니즘의 도전적 이론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 낸시 J. 코도로여사는 우선 '모성의 힘'을 강조하는 카렌 호니, 멜라니 클라인 등의 정신분석학적 도전이론을 소개한다.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도전, 해방, 통렬한 비판 등으로만 점철했으나, 점차 성적 특질에 주목하면서부터 프로이트 이론과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즉 "정신분석학에서는 맨처음 여성과 남성의 성특질론, 성 불균등론, 이성간 애정발달론 등에 주목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페미니스트 이론을 집대성하고, 프로이트가 외디푸스 콤플렉스에서 강조한 점을 비판하면서 대상관계론의 기초는 모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리는 자신의 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너무나 단순히 어린이에 대한 대상으로써 어머니를 상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모든 어린이는 본질적으로 여성에 의해 야기되는 기본적인 경험을 갖는다"는 것. 어린이를 돌보는 일차적인 인물이 여성이며, 그것은 아이들의 교섭능력이 필연적으로 여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아이들은 동일한 성에 대한 소속감으로 어머니와의 교감을 느끼지만, 남자아이들은 분리된 성의 존재로서 위협감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3, 4세경 일단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단계로 접어들면 여성지배에서 남성지배로의 세력발전이 있게 되고, 아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적 특질에 주목하면서부터 프로이트 이론과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즉 "정신분석학에서는 맨처음 여성과 남성의 성특질론, 성 불균등론, 이성간 애정발달론 등에 주목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저자가 외디푸스 콤플렉스 이론과 성일치와의 관계를 만족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모자, 부녀간 근친상간의 위협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 외디푸스 콤플렉스 이전 단계의 부성역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 「뉴욕 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목록 1990년 1월 21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DADDY 다니엘 스틸(펠라코트)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으로 한 노인과 두아들의 안전한 세계가 파탄에 직면한다.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로버트 풀검(빌라드) 베스트셀러 작가의 새로운 수필집.	THE DRAWING OF THE THREE 스티븐 킹(시그넷/NAL) "총잡이"로 시작되는 연속적인 공포 이야기.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검(아미비) 수필집
2	CLEAR AND PRESENT DANGER 톰 클랜시(피터남) CIA요원 켈 라이언이 콜롬비아의 마약 왕국과 싸운다.	LIAR'S POKER 마이클 루이스(노턴) 젊은 주식 중개인이 지켜본 다사다난했던 80년대의 월가.	THE SANDS OF TIME 시드니 셸던(위너) 4명 명의 수녀가 스페인군과 마스크 분리주의자간의 싸움에 휘말려든다.	THE BLOODING 조셉 워버(밴텀) 두 여인의 살인사건을 유전자 단서로 해결한다.
3	CARIBBEAN 제임스 미치너(랜덤 하우스) 소설 형태로 이야기되는 아름다운 카리브해도의 역사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검(빌라드) 인생을 새로운 시각에서 풀이하는 수필집.	A THIEF OF TIME 토니 힐러만(하퍼 페이퍼백) 행방불명된 고고학자가 잃어버린 모조품 그리고 살인자를 추적한다.	NEW KIDS ON THE BLOCK 그레이스 카탈라노(밴텀) 십대 노래모임의 멤버 다섯명의 생활.
4	THE DARK HALF 스티븐 킹(바이킹) 공포물작가가 무시무시한 살인을 계획한다.	THE TEMPTING OF AMERICA 로버트 H. 보크(프리 프레스) 로널드 레이건의 최고법정에 의한 정치와 법률의 관계에 대한 비평.	SPY HOOK 렌 다이튼(벨런타인) 영국비밀 정보내부의 금전사기에 실마리가 잡힌 직원 버나드 샌슨.	THE ROAD LESS TRAVELED 스크트 퀘(터치스톤/SXS) 정신건강을 다룬 수필집.
5	VINELAND 토마스 핀천(리틀 브라운) 북부 캘리포니아의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지배했던 1960년대의 격정.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븐 W 호킹(밴텀) 통일된 우주관을 창조하기 위한 과학자의 논제.	THE SHELL SEEKERS 로사먼드 펠처(델) 3세대에 걸친 가족.	BLIND FAITH 조 맥기니스(시그넷/NAL) 한 가족의 비극.
6	FOUCAULT'S PENDULUM 움베르토 에코(윌프/하코트 브레이스 조바노비치) 고대의 문서와 신비한 암호가 컴퓨터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MY TURN 낸시 레이건 윌리엄 노박(랜덤 하우스) 전직 대통령 부인의 백악관 생활 회상.	THE LONG DARK TEA-TIME OF THE SOUL 더글러스 아담스(포켓) 공황폭발의 의미를 깨닫는 형사.	THE CAT WHO CAME FOR CHRISTMAS 클리블랜드 에이모리(랜겐) 고집스런 구두쇠의 고양이에 대한 기억.
7	HARMFUL INTENT 로빈 쿡(피터남) '의료과오'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의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투쟁한다.	ROSEANNE 로젠 바(하퍼 & 로) TV 코미디언의 자서전.	SCORPIUS 존 가드너(차터) 제임스 본드가 악과 테러를 자행하고는 극악무도한 이교도집단 두목과 싸운다.	THE POWER OF MYTH 조셉 캠벨, 빌 모이어스(더블데이) 생활의 무대를 밝게 비추는 신화적방법.
8	A RULING PASSION 주디스 미카엘(포세이돈) 젊은 과부가 텔레비전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사랑과 음모, 살인과 복수로 가득찬 모험을 하게 된다.	ALL MY BEST FRIENDS 조지 번즈, 데이비드 피셔(피터남) 쇼비지니스계 거물의 회상록.	TOO DEEP FOR TEARS 캐더린 린 데이비스(포켓) 영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온 세 자매가 그들의 아버지가 스코틀랜드에서 사망했음을 알게 된다.	LOVE, MEDICINE & MIRACLES 베르니 S. 시겔(페레니얼/하퍼 & 로) 환자의 마음과 감정의 중요성.
9	TALES FROM MARGARITAVILLE 지미 버핏(하코트 브레이스 조바노비치) 신비한 카리브의 한 섬을 무대로 한 짧은 이야기들.	AMONG SCHOOL CHILDREN 트래시 키더(토드/휴먼 미플린) 매사추세츠주 홀리요크의 5학년 담임교사 1년의 생활.	SMOKE AND MIRRORS 바바라 미카엘스(버클리) 여성하원의원의 뜻나기 보좌역이 이상한 사건들에 휘말려든다.	THE CLOTHES HAVE NO EMPEROR 폴 슬렌스키(화이어사이드) 1980년대의 별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10	MYSTERY 피터 스트라우브(더튼) 총명한 젊은이와 늙은 기인이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살인을 풀기 위해 만난다.	DRIVE 래리 버드, 블 라이언(더블데이) 보스턴 셀틱스 프로농구팀 스타의 자서전.	STOLEN BLESSINGS 로렌스 샌더스(버클리) 헐리우드 수퍼스타 마릴린 테일러의 생애.	GRACIE 조지 번즈(랜겐) 코미디언 그레이시 앨런의 생애.